

## 바이오기업 교육 세미나 개최

한국바이오협회(회장 서정선)가 바이오전문 전시회·컨퍼런스 행사인 BIO KOREA 2009에서 바이오기업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.

바이오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9월15일 <The Entrepreneur Boot Camp>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미국 바이오 국제행사에서 5회째 개최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대상 교육 세미나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진행된다.

바이오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Technology qualification, Financing, Business Strategy 및 Licensing, IP에 관해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들과 연사, 패널이 참가할 예정이다.

Boot Camp의 최초의 멤버이자 미국 대표 바이오투자기업 Burrill & Company의 CEO G. Steven Burrill과 기술이전센터 Director Stephen M. Sammut 이 참가한다.

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 1호 바이오기업인 마크로젠 김형태 사장, 바이넥스 박순재 사장, 메디프론 묵현상 대표 등 참가해 자유로운 Q&A와 토의 형식으로 진행된다.

8월18일부터 바이오협회 홈페이지([www.koreabio.org](http://www.koreabio.org))에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참가 신청할 수 있다.

Burrill & Company는 생명공학, 제약 등 바이오 분야 전문 컨설팅·투자기업으로 1994년에 설립됐으며 미국 인디애나 주정부의 미래펀드를 비롯해 말레이의 생명과학펀드, 타이완의 국가개발펀드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9/08/19>